

가족 갈등이 패밀리 창업기업의 재무적 혼용에 미치는 영향:

일-가정 불균형의 매개 및 배우자 정서적 지지의 조절 효과

김우종*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가정 균형과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가족 갈등으로 인하여 야기된 재무적 혼용을 완화시킴으로써 패밀리 창업기업의 건전성과 성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소재하는 창업초기 단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30개 데이터 중 통계분석에 적합한 210개의 데이터에 대해 SPSS와 AMO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갈등은 가게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가족 갈등은 일-가정 불균형을 매개로 가게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배우자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가게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미치는 가족 갈등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자원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환경은 열악하기 때문에 가게와 기업 간에 무분별한 자원교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쉽다. 가족 기업의 건전성과 성장성을 확보하고 장수기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가게와 기업 간의 합법적이고 치밀한 자원교환 전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족 기업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기업 운영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패밀리 창업기업, 가족 갈등, 일-가정 불균형, 배우자 정서적 지지, 재무적 혼용

* 서울신용보증재단(laodong@naver.com)

I. 서 론

최근 창업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창업 초기의 소기업은 가족에 의해 운영되는 가족 기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기업은 주로 가족에 의해 관리되고 적어도 두 명의 가족 구성원이 일하는 기업을 지칭한다(Jennings et al., 2013). 가족이 사업운영에 대해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형태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소기업은 가족과 기업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그 역할도 혼란스럽다. 가족의 목표, 원칙, 규칙 및 행동 패턴이 기업목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관계와 역할들이 기업 내부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 사업주와 사업주 가족의 의사결정은 사업의 성패 및 라이프 사이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 기업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Francesca & Annalisa, 2013). 여성들은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을 회피함으로써 가족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Barrett & Moores, 2009).

패밀리 비즈니스(이하 가족 기업)는 미국, 유럽 등 상당수 국가에서 발견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기업 모델로서 가족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가족-기업 간의 밀접한 연결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Chrisman et al., 1999). 세계적으로 가족 기업의 수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포르투갈 70%, 영국 75%, 스페인 80%, 스위스 85%, 이탈리아 및 중동 국가 90% 이상 등 가족 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Neubauer & Lank, 1998).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기업은 자영업자 등 소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7년말 현재 OECD 평균 자영업자수는 전체 취업자 대비 17%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25.4%로 OECD 37개 국가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편에 속하므로 은퇴 이후에도 자영업 창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가족들의 참여율이 높은 편이어서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가족 기업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OECD, 2018).

창업 이후 안정적 운영에 도달하기까지 사업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운전자금 조달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과 기업 간에는 다양한 자원들이 교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계 자금을 사업 자금으로 유용하거나 사업 자금을 가계 자금으로 유용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Haynes et al.(1999)의 연구에 따르면 1997년 NFBS (National Family Business Survey) 패널 데이터를 통해 조사한 표본 가구 중 3분의 2 가량이 가계와 기업 간에 재무적 자원을 혼용(intermingling)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재무적 자원이 가계와 기업 간에 분리되지 않고 혼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계와 기업 간 자금거래가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경우 장기적으로 법적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재무적 리스크가 커져 사업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Burns &

McCullough, 2001). 이런 점에서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은 가족과 기업 양측의 잠재된 리스크로서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자금 차입은 종업원이 적은 사업체와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주 발생한다. 가계와 기업의 재무적 혼용은 사업 성공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가계 자금을 사업 자금으로 유용함에 따라 자아실현 등 성취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Muske et al., 2009).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자본 영세성과 운영 취약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가족과 기업 간의 자원 연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 기업에서 가족-기업 간의 경계는 상당히 모호한 편이며 가족 내에서의 패턴과 역할 관계가 기업 내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기업 내에서 여성들은 부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 사업주를 아무런 대가 없이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Danes & Olson, 2003). 가족 기업에 관한 연구는 가족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로 발전되기도 한다. 여성들은 가족 기업 경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직책이나 권한이 없이 남성 배우자의 기업가적 역할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기도 한다(Francesca & Annalisa, 2013).

선행연구에서는 종업원 수, 업력, 이익, 사업장 위치 등 기업 특성이나 사업주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족 수입이나 규모, 기타 가족의 특성 등 유형적 요소들이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며(Muske et al., 2009),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일-가정 균형 등 무형적 요소가 재무적 혼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창업 초기 가족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 간의 갈등이나 배우자의 지지, 일-가정 균형 등 무형적 요소들이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 가족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의 자영업 상당수는 가족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아 생존경쟁이 치열한 편이고 가족 간의 갈등과 배우자의 역할이 기업 운영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 셋째, 가계와 기업 간 재무적 혼용이 빈번하고 무원칙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업 및 사업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일-가정 균형과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재무적 혼용을 완화시킴으로써 가족 창업기업의 건전성과 성장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 기업에서의 역할 불만에 따른 가족 갈등이 일-가정 불균형의 매개를 거쳐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가족 갈등, 일-가정 불균형, 가계와 기업 간 재무적 혼용의 영향 관계가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 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가족 기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가족 기업의 창업 목적이 비가족 기업의 창업 목적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이상의 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하는 창업 초기 단계의 소기업 및 소상공

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확보된 230개 데이터 중 이상치나 불성실 응답지 20부를 제외하고 통계분석에 적합한 210개 데이터에 대해 SPSS와 AMO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SFB 모델 및 WFB 이론

가족 기업은 전 세계에 걸쳐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Heck & Stafford(2001)는 미국에 1,000만여 개의 가족 기업들이 있으며, 매년 약 10조 달러의 총매출과 6천 9백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가족 기업은 하나의 시스템 또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이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SFB(Sustainable Family Business) 모델(Stafford et al., 1999)은 어느 한 시스템의 자원이 반대 시스템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가족 기업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SFB 모델에서는 사업성과를 가족 및 기업 특성의 함수로 간주하며 기업의 속성을 통합해 설명한다. 가족의 복지 또한 가족 및 기업 특성의 함수로 간주된다.

SFB 모델에 의하면 외부 환경에서 오는 압박에 대해 가족과 기업 두 개의 시스템은 규칙적 패턴으로 대응한다(Miller et al., 1999). 두 시스템 간 교환을 포함하는 반응 방식은 시간 자원(Fitzgerald et al., 2001, Winter et al., 1993)과 재무 자원(Haynes et al., 1999)이 적절하게 조정된 형태를 취하게 된다.

가족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가족과 기업 두 개 시스템의 적절한 반응에 의한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과 기업 두 개 시스템은 성공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붕괴에 대응해야 한다. 가족과 기업 간의 자원 혼용은 주요한 반응 옵션이 될 수 있다(Bhargava & Lown., 2006). 선행연구에서는 기업 유형에 따라 자원의 혼용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으나(Muske et al., 2009), 자원의 혼용은 가족과 기업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ynes et al., 1999; Muske et al., 2003).

일-가정 균형(Work-Family Balance)은 개인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일과 가족 이론의 공통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Clark, 2000; Guest, 2002; Voydanoff, 2005). 일-가정 균형이론(Work-Family Balance Theory)에 따르면 일과 가정에 할당된 시간과 역할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때 비로소 양자 간 균형이 달성된다. 성공적인 일과 직장생활은 긍정적 가정생활을 촉진하기도 하고, 가족의 전폭적 후원은 긍정적인 일과 직장생활을 촉진하기도 한다(Frone, 2003). 가족 기업이 시작되면 일-가정 균형이 급속히 파괴된다. 노동 공급에 비해 노동 수요가 많아지고 일의 과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가족보다 기업에 더욱 몰

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족과 기업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창업은 일-가정 균형을 달성하기보다는 일-가정 불균형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Danes et al., 2002).

2.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본 논문은 가족 간의 갈등이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일-가정 불균형의 매개역할과 배우자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tafford et al.의 SFB 이론(1999) 및 Frone의 일-가정 균형이론(2003)으로부터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계와 기업의 재무적 자원이 상호 연결되는 것은 사업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경우에 재무적 자원의 혼용은 사업에 긍정적이지 않다. 기업의 회계장부에서 이러한 상호 교환이 포착되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혼란스럽고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업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Muske et al., 2009). 기업이 별도의 재무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하다(Burns & McCullough, 2001). 금융기관은 기업의 차입자금이 사업운영에만 투입될 것으로 믿고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의 재무적 혼용(intermingling)은 향후 운영자금 차입 및 채무 상환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Muske et al., 2009).

선행연구에 따르면 기업가의 특성, 가족의 특성,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재무적 혼용 수준과 방향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기업의 자본 구조는 사업주들의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친다(Timmons, 1990). 자금조달은 기업규모의 함수이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개인이나 가족의 자금을 더욱 의존하고 있다(Berger & Udell, 1998). 가족과 기업에서 역할 모호성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가족 간의 갈등(Family Conflict)은 개인과 가족의 복지는 물론 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August, 2011).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은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필연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동반하게 된다. 재무적 혼용에 대한 명확한 기록들이 없는 경우 세무 감사를 받게 되며, 금융기관의 대출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Muske et al., 2009). 가족 간의 갈등(Foley & Powell, 1997), 개인적 요구의 무시(Garrett, 1993), 불평등한 책임분담(Goffee & Scase, 1993), 시간과 재무적 압박(Jaffee, 1997) 등은 가족 간에 새로운 긴장 상태를 조성하는 원인들이며 기업의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한다(Dyer, 1994). 가족과 기업에서 역할 차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도 회사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가족 갈등은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업에 대한 과도한 몰입은 일-가정 균형을 크게 위협하고 부부의 균형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된다(Stoner et al., 2005). 내재된 긴장감, 우울감, 좌절감, 분

노 및 생리 증상 등은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Jaffee(1997)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 이후 시간적으로 여유가 줄어들고 재무적으로 압박이 커짐에 따라 부부 갈등 등 가족관계의 질이 악화된다. 재무적 압박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한다. 가계자금의 사업자금 유입은 청구서 지불을 지연시키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Winborg & Landstrom, 2001).

가족 창업으로 인해 종종 심각한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일-가정 균형이 깨지는 등 가족관계의 질이 악화되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Van Auken & Werbel, 2006). 창업 초기에는 사업운영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입하지만 효과가 적고 일-가정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Stoner et al., 2005). 한편, 근무시간과 여가시간을 사업주와 배우자가 함께 공유할수록 일-가정 균형은 향상된다(Marks et al., 2001). 근무시간은 균형의 감소와 관련이 있고 여가시간은 균형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Voydanoff, 2005). 가족 간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사업운영에만 몰두하게 한다. 가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되면 일-가정 균형은 파괴되고 사업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금관리에 실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가족 갈등은 일-가정 불균형을 매개로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배우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 기업의 성장에 기여한다. 배우자는 사업주의 감정상태에 공감을 표시하는 등 정서적으로 지지하거나 때로는 책임과 역할의 분담 등 도구적으로 지지하는 방식을 취한다(Gurman, 2008).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는 일-가정 균형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사업의 성공과 관련이 깊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배우자의 절대적인 헌신은 원만한 사업운영에 도움을 주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Carolis & Saporito, 2006).

배우자의 헌신적인 지지는 창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생성의 부채(liability of newness)를 줄일 수 있는 자원이 된다(Hall, 2005). 배우자의 지지가 적은 사업주는 시간적·심리적으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Rowe & Bentley, 1992). 배우자가 사업주를 정서적으로 지지한다면 사업주는 훨씬 효율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쇄되거나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가족 갈등이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가족 갈등이 일-가정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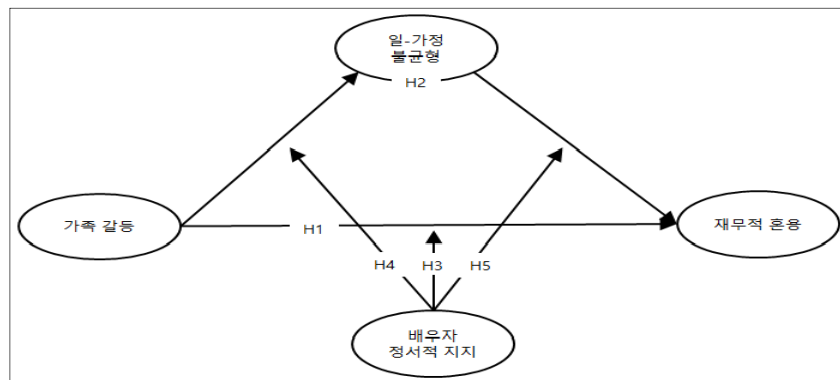
가설 5. 일-가정 불균형이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Stafford et al.의 SFB 이론(1999) 및 Frone의 일-가정 균형이론(2003)을 바탕으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그림 1>와 같이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가족 간의 갈등은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일-가정 불균형의 매개 및 배우자 정서적 지지의 조절 역할에 따라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측정도구

1) 재무적 혼용(Financial Intermingling)

재무적 혼용은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되었으며 가계-기업 재무적 혼용과 기업-가계 재무적 혼용 등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가계-기업 재무적 혼용의 측정도구는 ‘나는 가계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조달한 적이 있다’, ‘나는 가족의 소득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나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쓴 적이 있다’, ‘나는 가족, 친지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한 적이 있다’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업-가계 재무적 혼용의 측정도구는 ‘나는 사업소득을 가계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나는 사업소득을 상황에 따라 가계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편이다’, ‘나는 가족 구성원의 요청을 받고 사업자금을 빌려준 적이 있다’, ‘나는 사업용 부동산 또는 자산을 가계자금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변인의 측정도구 모두 Hanes et al.(1999), Muscke et al.(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1(strongly disagree)에서 4(strongly agree)의 범위에서 측정되었으며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데이터는 통계분석을 위하여 역코딩 처리하였다.

2) 가족 갈등(Family Conflict)

가족 갈등은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활용되었으며 측정도구는 Clinton et al.(2009) 연구를 참고하여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집에서 화를 내곤 한다’, ‘사업 때문에 나는 가족과 갈등을 자주 겪는다’, ‘집에 있는 동안 내가 사업에 얽매어 있는 것을 가족이 좋아하지 않는다’, ‘사업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나는 집에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1(strongly disagree)에서 5(strongly agree)의 범위에서 측정하였으며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데이터는 통계분석을 위하여 역코딩 처리하였다.

3) 일-가정 불균형(Work-Family Unbalance)

일-가정 불균형은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활용되어 과도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사업에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Kopelman et al.(1983) 연구에서 적용되었던 3개 문항에 1개 문항을 추가하여 ‘사업운영 때문에 나는 하루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일에 매달려 보낸다’, ‘사업운영 때문에 내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사업운영 때문에 나는 취미생활을 거의 하지 못한다’, ‘사업운영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모습이 되기 어렵다’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1(strongly disagree)에서 5(strongly agree)의 범위에서 측정되었으며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데이터는 통계분석을 위하여 역코딩 처리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의 편의와 연구변수 간 개념의 일관성을 위해 “일-가정 균형”에서 “일-가정 불균형”으로 변수명을 변경하였다.

4) 배우자 정서적 지지(Spousal Emotional Support)

배우자 정서적 지지는 본 연구에서 조절변수로 활용되었다. 측정도구는 Procidano & Heller(1983)의 연구를 참고하여 ‘배우자는 내 사업이 어려워져도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 ‘배우자는 사업운영에 대한 나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 등 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1(strongly disagree)에서 5(strongly agree)의 범위에서 측정되었으며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5) 기타(Others)

주요 연구변수 이외에 사업주와 기업 특성을 조사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자녀 수, 배우

자의 근무시간 등 5개 항목으로 기업이 특성을 구성하였고 산업유형, 존속년수, 종업원 수 (사업주 포함), 월평균수입 등 5개 항목으로 기업 특성을 구성하였다.

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Cronbach's α 에 의한 신뢰성 지수는 각각 0.903, 0.850, 0.873, 0.852, 0.903 등으로서 모두 양호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변수	관측변수	1	2	3	4	5
가계-기업 재무적혼용	1 가계자금의 사업자금 조달	.853	.103	.138	.231	-.048
	2 가족소득의 사업자금 사용	.818	.220	.116	.236	.026
	3 가족 구성원에게서 사업자금 차용	.811	.225	.315	.138	-.062
	4 가족, 친지의 자산을 담보로 사업자금 조달	.693	.305	.436	.053	.031
가족갈등	1 사업 때문에 집에서 화를 내는 편	.140	.828	.198	.156	-.035
	2 사업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는 편	.168	.763	.080	.249	.048
	3 집에서 사업에 얽매어 있는 것을 가족이 싫어함	.284	.712	.130	.320	.218
	4 사업 부담으로 집에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음	.288	.615	.058	.337	.188
기업-가계 재무적혼용	2 상황에 따라 사업소득을 가계자금으로 사용함	.108	-.045	.852	.243	.012
	3 가족 요청으로 사업소득을 빌려 준 적 있음	.152	.128	.795	.250	-.023
	1 사업소득을 가계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음	.502	.306	.702	.014	.086
	4 사업용 부동산 및 자산을 가계자금 용도로 사용	.402	.319	.701	.031	.052
일-가정 불균형	1 너무 많은 시간을 회사 일에 매달림	.029	.188	.147	.814	-.017
	2 회사 일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음	.239	.245	.055	.788	.018
	3 회사 일 때문에 취미생활을 거의 못함	.210	.181	.193	.742	.024
	4 회사 일 때문에 원하는 배우자 모습이 못됨	.173	.458	.249	.636	.102
배우자 정서적지지	2 사업운영에 대한 고충을 배우자가 이해	-.007	.084	.042	.059	.947
	1 사업이 어려워져도 배우자는 나를 편하게 해줌	-.034	.104	.001	-.005	.945
Eigen Value		3.326	2.926	2.856	2.798	1.905
% of Variance		18.476	16.257	15.869	15.542	10.585
Cumulative %		18.476	34.733	50.602	66.144	76.729
Cronbach's α		.903	.850	.873	.852	.903
KMO / Bartlett 구형성 검정		0.874/0.000(=2538.553, df=153)				

4.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성개념 타당성 검정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2>의 집중타당성 및 <표 3>의 판별타당성 측정에 의한 구성 개념 타당성¹⁾도 모두 검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1) 구성개념 타당도는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에 의해 검증할 수 있다. 집중타당성은 요인부하량이 0.5(유의성 >1.965)이고 평균분산추출(AVE)은 0.5 이상이며 개념신뢰도(C.R.)가 0.7 이상이어야 한다. 판별타당성은 각 변수의 AVE 제곱근이 상관계수보다 커야 한다(Fornell & Larcker, 1981)

<표 2> 집중타당성 검정

잠재변수	관측변수	비표준 화계수	S.E.	C.R.	요인 부하량	오차 분산	AVE	C.R.
가계-기업 재무적혼용	가계-기업재 무적혼용4	1			0.848	0.443	0.586	0.849
	가계-기업재 무적혼용3	1.129	0.065	17.251	0.914	0.286		
	가계-기업재 무적혼용2	0.949	0.070	13.514	0.782	0.647		
	가계-기업재 무적혼용1	0.976	0.070	13.983	0.800	0.608		
기업-가계 재무적혼용	기업-가계재 무적혼용4	1			0.887	0.415	0.522	0.808
	기업-가계재 무적혼용3	1.003	0.048	20.703	0.960	0.131		
	기업-가계재 무적혼용2	0.610	0.056	10.840	0.646	0.795		
	기업-가계재 무적혼용1	0.600	0.060	9.957	0.608	0.941		
일-가정 불균형	일-가정 불균형4	1			0.836	0.391	0.520	0.812
	일-가정 불균형3	0.892	0.078	11.416	0.738	0.603		
	일-가정 불균형2	0.96	0.079	12.134	0.775	0.555		
	일-가정 불균형1	0.822	0.076	10.823	0.707	0.612		
가족갈등	가족 갈등4	1			0.731	0.554	0.539	0.823
	가족 갈등3	1.037	0.103	10.048	0.725	0.617		
	가족 갈등2	1.020	0.099	10.257	0.740	0.547		
	가족 갈등1	1.204	0.101	11.923	0.869	0.299		
배우자 정서적지지	배우자정서적지지2	1			0.906	0.175	0.828	0.906
	배우자정서적지지1	0.985	0.141	6.964	0.908	0.166		

<표 3> 판별타당성 검정

잠재변수	1	2	3	4	6	AVE 제곱근
가족-기업재 무적혼용	1					.765
기업-가족재 무적혼용	.638**	1				.723
일-가정 불균형	.474**	.445**	1			.721
가족갈등	.550**	.460**	.636**	1		.734
배우자정서적지지	.005	.074	.096	.215**	1	.910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함)

5. 연구모형 적합도 검정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연구모형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적합도 검정기준²⁾을 충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체 카이제곱은 66.474, 자유도는 32, p 값이 0.000보다 작게 나타났다. p 값이 0.000보다 작다는 것은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낮음을 의미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적절한 경우에만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구조 방정식에서 카이제곱

2) 연구모형 적합도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권장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P > 0.05$, $RMR < 0.05$, $GFI > 0.9$, $AGFI > 0.9$, $RMSEA < 0.1$ (보통), $RMSEA < 0.08$ (양호), $NFI > 0.9$, $IFI > 0.9$, $TLI > 0.9$, $CFI > 0.9$ 등이다(Byrne, 2001)

은 표본 크기나 모델의 복잡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잡한 모델은 GFI(goodness of fit index)로써 적합성을 보완해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CFI가 0.90보다 크면 적합, 0.95보다 크면 적합성이 높다고 간주하며 RMSEA 값이 0.1보다 작으면 보통, 0.08보다 작으면 양호한 모델로 간주한다(Byrne, 2001). 본 연구모형의 기타 적합성 추정치는 RMR=0.051, GFI=0.942, AGFI=0.90, NFI=0.939, RFI=0.914, IFI=0.967, CFI=0.967, RMSEA=0.072로서 가설검증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

본 연구를 위하여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서울시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30개의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본 논문의 통계분석에 적합한 설문지 210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가설의 채택과 기각은 유의수준 $p < 0.05$ 에서 판단하였다.

본 연구(N = 210)의 표본은 124명의 남성 사업주(59.0%)와 86명의 여성 사업주(41.0%)로 이루어졌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68명으로 가장 많고(32.4%), 30대가 67명(31.9%), 50대가 59명(28.1%), 60대 이상이 11명(5.2%), 20대 이하가 5명(2.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130명의 사업주가 4년제 대학(61.9%)을 졸업했으며 대학원 졸업 41명(19.5%), 고졸 이하 38명(18.1%), 기타 1명(0.5%)로 조사되었다. 자녀 수를 살펴보면 2명의 자녀를 가진 사업주가 77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1명의 자녀를 둔 사업주는 64명(30.5%), 자녀가 없는 사업주는 49명(23.35%),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업주는 20명(9.5%) 순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아닌 가정에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배우자가 89명(42.4%)로 가장 많았고, 일평균 4시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85명(40.5%), 4시간 이하 근무 배우자는 36명(17.1%)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외식업이 77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63명(30.0%), 도소매업 38명(18.1%), 서비스업 29명(13.8%), 기타 3명(1.4%) 순이었다. 회사 존속년수를 살펴보면 3년~7년 이하 기업이 91개(43.3%)로 가장 많았고 1년~2년 기업이 67개(31.9%), 1년 미만 기업이 52개(24.8%)로 조사되었다. 2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이 103개(49.0%)로 가장 많았고 3명~4명이 62개(29.5%), 5명~6명이 27개(12.9%), 7명~9명이 12개(5.7%), 10명 이상이 6명(2.9%)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300만~600만원 미만의 수입을 벌어들인 사업주가 61명(29.0%)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미만과 600만원~1000만원 미만이 각각 60명(28.6%), 1000만원 이상이 29명(13.8%)으로 나타났다.

<표 4> 표본의 일반적 특성(N=210)

구분	항목	빈도수	백분율	누적백분율
성별	남성	124	59.0	59.0
	여성	86	41.0	100.0
연령	20대이하	5	2.4	2.4
	30대	67	31.9	34.3
	40대	68	32.4	66.7
	50대	59	28.1	94.8
	60대이상	11	5.2	100.0
학력	고졸이하	38	18.1	18.1
	학사	130	61.9	80.0
	석박사	41	19.5	99.5
	기타	1	.5	100.0
자녀수	없음	49	23.3	23.3
	1명	64	30.5	53.8
	2명	77	36.7	90.5
	3명이상	20	9.5	100.0
배우자근무시간	없음	89	42.4	42.4
	4시간이하	36	17.1	59.5
	4시간이상	85	40.5	100.0
산업	외식업	77	36.7	36.7
	도소매업	38	18.1	54.8
	서비스업	29	13.8	68.6
	제조업	63	30.0	98.6
	기타	3	1.4	100.0
존속년수	1년차이하	52	24.8	24.8
	2년차	67	31.9	56.7
	3년-7년차	91	43.3	100.0
근로자수	2명이하	103	49.0	49.0
	3명-4명	62	29.5	78.6
	5명-6명	27	12.9	91.4
	7명-9명	12	5.7	97.1
	10명이상	6	2.9	100.0
소득	300만원미만	60	28.6	28.6
	300-600만원미만	61	29.0	57.6
	600-1000만원미만	60	28.6	86.2
	1000만원이상	29	13.8	100.0

가설검정을 위해 <표 5>와 같이 통계분석에 사용된 연구변수들에 대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값들은 모두 중간 이상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족-기업 재무적 혼용의 평균값(M=3.6488)이 기업-가족 재무적 혼용의 평균값(M=3.16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운영자금 부족 등 신생성의 부채 현상을 보여주는 창업초기 기업의 두드러진 특성으로서

운영난 해소를 위해 가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표 5> 기술통계

잠재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족갈등	1.00	5.00	3.5952	1.13864
가족-기업재무적혼용	1.00	5.00	3.6488	.92296
기업-가족재무적혼용	1.00	5.00	3.1643	.95461
일-가정불균형	1.00	5.00	3.7024	.93867
배우자정서적지지	1.00	5.00	3.3274	1.08531

2. 상관분석

연구변수 간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 <표 6>와 같이 재무적 혼용과 가족 갈등, 재무적 혼용과 일-가정 불균형 간의 상관계수는 안정적인 정(+)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연구가설의 방향과 일치하여 법칙타당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배우자 정서적 지지와 일-가정 불균형, 배우자 정서적 지지와 재무적혼용 간의 상관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연구모형 및 가설에서와 같이 배우자 정서적 지지는 조절효과 검증에 의해 변수 간 관련성을 탐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가족 갈등과 일-가정 불균형 간의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가족 갈등이 원인이 되어 일-가정의 균형이 파괴되거나 일-가정의 불균형이 가족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피어슨 상관분석

잠재변수	1	2	3	4
가족갈등	1			
일-가정 불균형	.636**	1		
배우자 정서적지지	.215**	.096	1	
재무적 혼용	.559**	.509**	.043	1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3. 가설검정

1) 가족 갈등이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미치는 영향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족 간의 갈등이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경로계수와 C.R.값은 각각 0.605와 3.863으로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채택되었다. 가족 간의 갈등이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 등 기업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사업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 7> 가족 갈등이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미치는 영향 검정 결과

가설	경로	방향	경로계수	S.E.	C.R.	p값	판단
H1	가족 갈등 → 재무적 혼용	+	0.605	0.157	3.863	***	채택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2) 일-가정 불균형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가족 간의 갈등이 일-가정 불균형을 매개로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지지하고 있다. 완전매개와 부분매개 여부에 대해서는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통해 판단하는 방법과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두 모형 간의 카이스퀘어 차이검증을 통해 판단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는 통계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부분 및 완전매개여부를 판단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직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간접경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모두 유의한 경우에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매개효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유의한지 확인해야 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는 가설 1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기타 조건들도 <표 8>과 같이 모두 유의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표 8> 일가정 불균형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추가 조건

경로	방향	경로계수	S.E.	C.R.	p값	판단
가족 갈등 → 일-가정 불균형	+	0.921	0.102	8.999	***	유의
일-가정 불균형 → 재무적 혼용	+	0.258	0.126	2.053	0.04**	유의

(***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함)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표 9>과 같이 가족 간의 갈등은 일-가정 불균형을 매개로 하여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트스트래핑 수행 결과, 간접효과 유의성은 0.05로 나타나 $p < 0.05$ 수준에서 채택되었다.

<표 9> 일-가정 불균형의 매개효과 검정

가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매개유형	간접효과유의성	판단
H2	가족 갈등 → 재무적 혼용	.493	.764*.254=.194	.687	부분매개	.005**	채택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함)

3) 배우자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AMOS를 통해 조절효과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집단별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경로를 제약한 제약모델과 제약하지 않은 자유모형을 비교하여 카이스퀘어 차이가 1 자유도 당 3.84 이상인지에 따라 조절효과 여부를 판단한다. 먼저 배우자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가설 3, 가설 4, 가설 5를 검증한 결과, 배우자 정서적지지 수준에 따라 일-가정 불균형이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4와 일-가정 불균형이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5는 기각되었으나 가족갈등이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10>과 같이 자유모형과 제약모형 간 비교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가설 3의 경우 1 자유도 당 카이제곱 감소분이 6.497로서 자유도의 감소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 카이제곱 감소 폭이 훨씬 크므로 배우자 정서적 지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족갈등이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배우자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의 경로계수가 0.342(C.R.=1.775)이며 배우자 정서적 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로계수는 1.186(C.R.=4.384)로서 배우자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미치는 가족갈등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10> 배우자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정

가설	경로	배우자 지지 low				배우자 지지 high				판단
		Estimate	S.E.	C.R.	P	Estimate	S.E.	C.R.	P	
H3	가족갈등→ 재무적혼용	1.186	0.27	4.384	***	0.342	0.192	1.775	0.076	채택
		자유모형(CMIN=114.353, d.f.=64), 제약모형(CMIN=120.85, d.f.=65), 차이 6.497								
H4	가족갈등→ 일-가정불균형	1.012	0.15	6.754	***	0.795	0.154	5.168	***	기각
		자유모형(CMIN=114.353, d.f.=64), 제약모형(CMIN=115.291, d.f.=65), 차이 0.938								
H5	일-가정불균형 →재무적혼용	-0.044	0.196	-0.227	0.821	0.394	0.166	2.373	0.018	기각
		자유모형(CMIN=114.353, d.f.=64), 제약모형(CMIN=117.411, d.f.=65), 차이 3.058								

(*** 0.01 수준에서 유의, ** 0.05 수준에서 유의함)

V.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종업원 수, 업력, 매출 등 수입, 사업장 위치 등 기업 특성이나 사업주의 성별, 나이, 학력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족수입이나 가족규모, 가족의 기타 특성 등 유형적 요소들이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Muske et al., 2009). 본 논문에서는 가족 기업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자영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일-가정 불균형의 매개와 배우자 정서적 지지의 조절을 거쳐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자영업자는 가족에 의지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가족 기업의 범주에 포함되며 자원의 부족 등 신생성의 부채 문제로 인해 재무적 혼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이다.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가족 기업을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갈등은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족 갈등은 사업주의 사업 몰입과 일-가정 균형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므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장기적으로 자금관리의 건전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과 기업의 재무적 기록에서 이러한 상호 교환이 포착되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혼란스럽고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업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Muske et al., 2009).

둘째, 가족 갈등은 일-가정 불균형을 매개로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가족 갈등은 일시적으로 사업에만 몰입하게 함으로써 일-가정 균형을 파괴하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운영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가족의 지지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족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곧 노동 수요를 적시에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운영난이 초래될 것임을 암시한다. 창업 이후 시간적으로 여유가 줄어들고 재무적으로 압박이 커짐에 따라 가족관계의 질은 급속도로 악화된다(Jaffee, 1997). 일-가정 균형이 나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겪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할 때 가족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균형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배우자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에서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미치는 가족 갈등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가족 중에서 배우자의 지지는 정서적 측면이나 도구적 측면에서 사업주가 느끼는 기업성과 및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 중시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업운영에만 매달리는 경우에 가족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가족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사업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가족 갈등의 상대적 영향력이 감소하지만,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가족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의 축적이나 단기간의 성장을 추구하는 비가족 기업과 달리 가족 기업의 창업 목적은 사업수행의 결과보다는 사업수행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더불어 참여하는 “행복한 창업”이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족 기업은 창업과 더불어 시간 자원과 재무 자원의 조율에 실패하고 가족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가정의 균형을 추구하고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를 확보하는 등 가족 간 화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물질 만능주의에 매몰되기보다는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각 세대별로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가족 기업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수기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신생성의 부채로 인하여 창업기업의 환경은 아주 열악할 수밖에 없으며 가족과 기업 간에 무분별한 자원교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쉽다. 가족 기업의 건전성과 성장성을 확보하고 장수기업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기업 간의 합법적이고 치밀한 자원교환 전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족 기업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도 기업 운영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일-가정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발맞추어 가족 기업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갈등이 가계와 기업 간의 재무적 혼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족 기업의 범위는 자영업에서부터 대기업, 창업기업에서부터 장수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본 논문은 가족 기업 중에서 소기업과 자영업자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가족 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식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장수 제조기업, 최첨단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복지 관점에서 가족 기업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 활용한 일-가정 균형이나 배우자 지지,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승계 문제 이외에도 가족 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장인 정신 등 가족 기업의 이슈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연구 변수의 범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민족이나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연구의 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족 기업 창업이 가족의 복지 및 삶의 질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의 기본단위는 가족이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족 위에서 만들어진다. 가족 복지 향상의 관점에서 가족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개발이나 민관공 수준의 거버넌스 구축 등 가족 기업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가족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족 기업에 대한 개념 및 실증 연구가 부족하여 느슨한 수준에서 해외의 가족 기업 개념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족 기업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조속히 가족 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후속 연구 활성화 및 가족 기업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August, R. A., 2011, "Women's later life career development: Looking through the lens of the kaleidoscope career model",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38. pp.208-236.
- Barrett, M., & Moores, K., 2009, "Strategic invisibility: A female approach to building familiness" Paper presented at the 5th Workshop on Family Firms Management Research, ELASM, Hasselt, Belgium.
- Berger, A. N., & Udell, G. F., 1998, "The economics of small business finance: The roles of private equity and debt markets in the financial growth cycl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22. pp.873-897.
- Bhargava, V., & Lown, J. M., 2006, "Preparedness for financial emergencies: Evidence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17. No.2, pp.17-26.
- Burns, M. M., & McCullough, C. B., 2001, "Business savvy for today's entrepreneur", Stillwater, OK: New Forum's Press.
- Cesaroni, F. M. and Sentuti, A., 2014, "Women and family businesses. When women are left only minor roles", *The History of the Family*, Vol.19. No.3, pp.358-379.
- Clark, S. C., 2000, "Work/family border theory: A new theory of work/family balance", *Human Relations*, Vol.53. pp.747-770.
- Clinton, G., Sharon, M., James, D., & Johnben, T., 2009, "Spousal Support and Work - Family Balance in Launching a Family Busi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30. No.8, pp.1098-1121.
- Chrisman, J. J., Chua, J. H., & Sharma, P., 1999, "Defining the family business by behavio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23. 19 - 39.
- Danes, S. M., & Olson, P. D., 2003, "Women's role involvement in family businesses, business tensions, and business success", *Family Business Review*, Vol.16. pp.53-68.
- Danes, S. M., M. A. Rueter, H. K. Kwon, & W. Doherty, 2002, "Family FIRO model", *Family Business Review*, Vol.15. pp.31-43.
- De Carolis, D. M., & Saporito, P., 2006, "Social capital, cognition,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A theoretical framework",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0. pp.41 - 56.
- Dyer, W. G., Jr., 1994, "Potential contributions of organizational behavior to the study of family owned businesses", *Family Business Review*, Vol.7. No.2,

pp.109-131.

- Fitzgerald, M. A., Winter, M., Miller, N., & Paul, J., 2001, "Adjustment strategies in the family business: Implications of gender and management rol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22. pp.265-291.
- Foley, S., & Powell, G., 1997, "Re-conceptualizing work-family conflict for business/marriage partners: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35. pp.36 - 47.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pp.39-50.
- Frone, M. R., 2003, "Work-family balance In J.C. Quick, and L.E. Tetrick(Eds.)", *Handbook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pp.143-16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arrett, E. M., 1993, "And business makes three", *Small Business Reports*, Vol.18. No.9, pp.27-33.
- Goffee, R and R. Scase, 1983, "Business ownership and women's subordination: A preliminary study of female proprietors", *The Sociological Review*, Vol.3. No.4, pp.625-48.
- Guest, D. E., 2002, "Perspectives on the study of work-life balance", *Social Science Information*, Vol.41. pp.255-279.
- Gurman, A. S., 2008,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4th edn. New York: Guilford.
- Hall, A., 2005, "Beyond the legal: Psychological ownership and responsibility in the family business", Proceedings of the FBN 16th Annual World Conference, Brussels.
- Haynes, G. W., Walker, R., Rowe, B. R., & Hong, G., 1999, "The intermingling of business and family finances in family-owned businesses", *Family Business Review*, Vol.12. No.3, pp.225-239.
- Heck, R. K. Z., & Stafford, K., 2001, "The vital institution of family business: Economic benefits hidden in plain sight", In G. McCann & N. B. Upton (Eds.), *Family business gathering 2001: The holistic model* (pp. 9-17). Deland, FL: Stetson University, Family Business Center.
- Jaffee, A., 1997, "Your business or your life. Inc", Vol.19. No.3, pp.108-109.
- Jennings, J., Breitkreuz, R., & James, A., 2013, "When Family Members Are Also Business Owners: Is Entrepreneurship Good for Families?", *Family Relations*, 62 (July), pp.472-489.

- Kopelman, R. E., Greenhus, J. H., & Connolly, T. F., 1983, "A model of work, family, and interrole conflict: A construct validation study", *Organizational Behavior & Human Performance*, Vol.32. pp.198-215.
- Marks, S. R., Huston, T. L., Johnson, E. M., & MacDermid S. M., 2001, "Role balance among White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3. pp.1083-1098.
- Miller, N. J., Winter, M., Fitzgerald, M. A., & Paul, J., 1999, "Family microenterprises: Strategies for coping with overlapping family and business demands",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Vol.5. No.2, pp.87-113.
- Muske, G., Fitzgerald, M. A., & Haynes, G., Black, M., Chin, L., MacCiure, R & Mashbum, A., 2009, "The Intermingling of Family and Business Financial Resources: Understanding the Copreneurial Couple",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20. No.2, pp.27-48.
- Neubauer, F. and Lank, A. G., 1998, "The family business: Its governance for sustainability", New York: Routledge/Jossey-Bass.
- OECD, 2018, OECD Data.
- Procidano, M. E., & Heller, K., 1983, "Measur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from family: Three validation stud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1. pp.1-24.
- Rowe, B. R., & Bentley, M. T., 1992, "The impact of the family on home-based work",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13. pp.279 - 297.
- Stafford, K., Duncan, K. A., Danes, S., & Winter, M., 1999, "A research model of sustainable family businesses", *Family Business Review*, Vol.12. No.3, pp.197-208.
- Stoner, C. R., Robin, J., & Russell-Chapin, L., 2005, "On the edge: Perceptions and responses to life imbalance", *Business Horizons*, Vol.48. pp.337-346.
- Timmons, J., 1990, "New Venture Creation in the 1990's", (5th ed.). Homewood, IL: Irwin.
- Van Auken, H., 2005, "Differences in the usage of boot strap financing among technology-based versus nontechnology-based firm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43. No.1, pp.93-103.
- Voydanoff, P., 2005,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perceived work-family fit and balance: A demands and resources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7. pp.822-836.
- Winborg, J., & Landstrom, H., 2001, "Financial bootstrapping in small business: Examining small business resource acquisition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6. No.3, pp.235-254.

Winter, M., Puspitawati, H., Heck, R. K. Z., & Stafford, K., 1993, "Time management strategies used by families with home-based work",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14. pp.69-92.

The Effect of Family Conflict on Financial Intermingling of Family Start-ups: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Work-Family Unbalance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Spousal Emotional Support

Kim, Woo-Jong*

—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work-family unbalance and spouse's emotional support contribute to the financial soundness and growth potential of family start-ups by alleviating financial intermingling induced by family conflicts.

[Design/Methodology]

I conduct a questionnaire survey on small business in the early stage of start-ups located in Seoul, Korea. I survey 230 business owners and analyze 210 usable responses using SPSS and AMOS statistical packages.

[Findings]

M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amily conflicts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 intermingling. Second, family conflicts, through the medium of work-family unbalance, affect the financial intermingling. Third, the influence of family conflicts on the financial intermingling is greater for the group with lower spouse's emotional support.

[Research Implication]

In the start-up firms that usually does not have sufficient resources, reckless exchange of resources between household and firm is likely to occur repeated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fforts to promote family harmony as well as a legitimate and precise resource exchange strategy between household and business are required to secure the financial soundness and growth potential of a family start-ups.

<Key Words> Family Start-ups, Family Conflicts, Work-Family Unbalance, Spousal Emotional Support, Financial Intermingling

* Seoul Credit Guarantee Foundation(laodong@naver.com)